

“이제는 평창시대...성공 키워드는 문화올림픽”

정재우가 만난 사람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8월 6~22일·한국시간 기준)이 끝나면서 국내외의 시선 또한 자연스럽게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향하고 있다. 2018년 2월 9일부터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 일원에서 17일간 펼쳐질 '눈과 얼음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일은 국가적 대사이자, 한국인 모두의 소망일 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 리우올림픽을 참관하기 위해 3주간 브라질을 다녀온 이희범(67)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만났다. 이 위원장은 리우패럴림픽을 지켜보고 성화봉송 주자로도 나서기 위해 5일 다시 일주일 여정으로 브라질 출장길에 오른다.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이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명감"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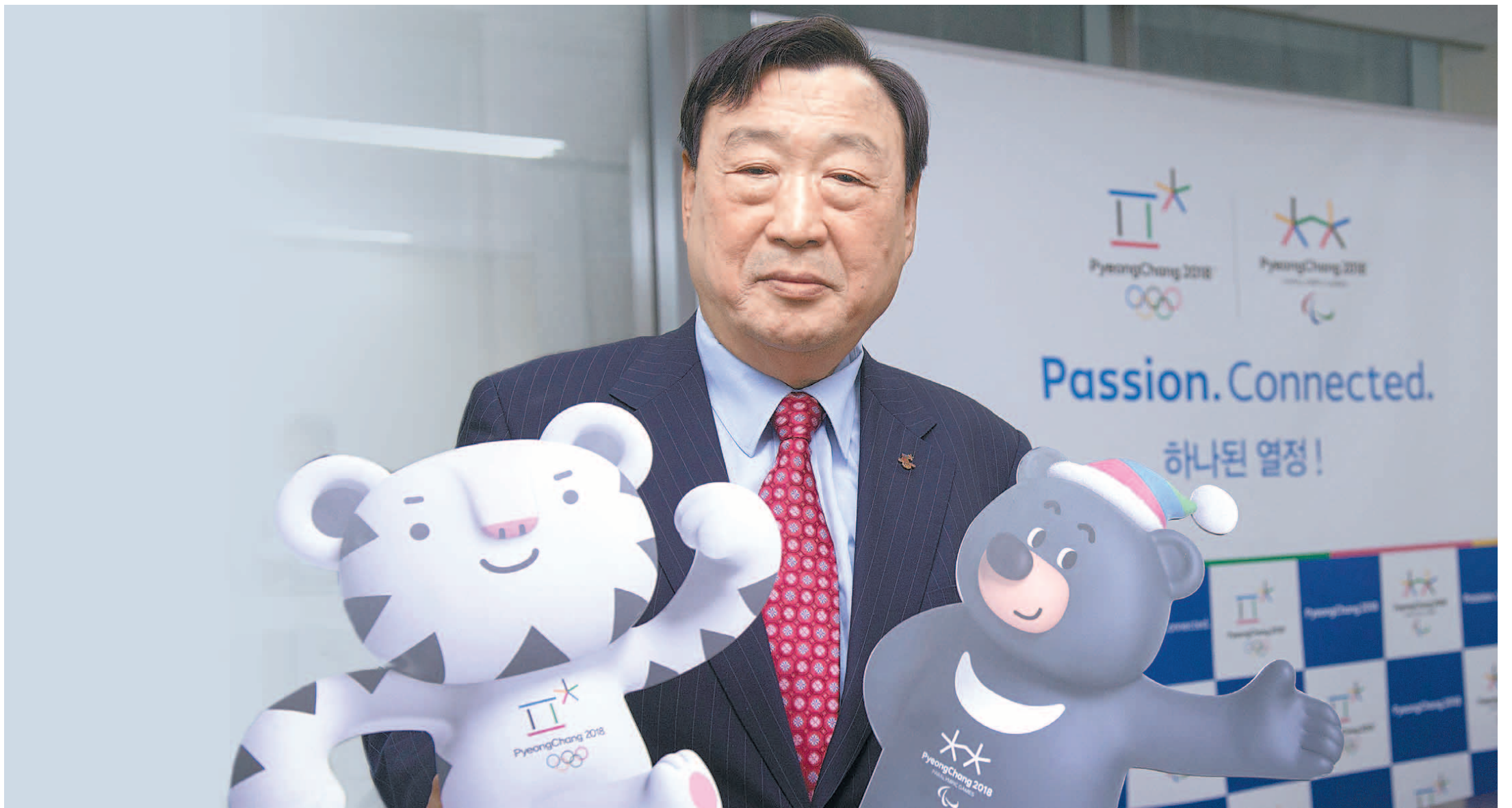
-리우올림픽이 끝났으니 이제는 평창동계올림픽이다. 전반적인 준비상황은 어떤가?

"3주 이상(리우에) 가 있었는데, 평창시대가 왔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대회 후반부에는 미국 NBC를 비롯한 세계 언론들이 모두 평창에 주목했다. (개최가) 2018년 2월이라고 하면 1년 6개월이 남았다고 생각할 텐데, 실제로는 올해 11월부터 시작한다. 내년 3월까지 테스트 이벤트 성격을 지닌 28개의 세계선수권대회가 평창에서 열린다. 따라서 올해 10월까지 경기장 시설은 다 끝나야 한다. 하드웨어 측면에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28개의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르고 나면 각 세계연맹의 요구를 수용해 내년에는 시설 보완을 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각 경기장에 관중석을 만들고, 하반기에는 각 종목 세계 선수들이 연습하러 (평창에) 올 것이다."

-현장에서 지켜본 리우올림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실한 준비상황 때문에 개막 이전부터) 여러 말들이 나왔는데, 3가지 측면에선 성공한 대회로 볼 수 있다. 정부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저비용으로 친환경·친문화올림픽을 치른 점은 칭찬할 만하다. 사소한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테러 같은 대형사고가 없었던 사실도 긍정적이다. 또 리우 시민들이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부수적인 경제효과와는 사실 누리지 못했다. 관광객 8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거리에 축제가 사라졌다.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조직위 차원에서 71명의 임직원을 리우 현지로 파견해 앞서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나?
"리우에 간 이유 중에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IOC 위원장은 '평창의 준비상황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새로운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평가해줬다. 리우에 평창올림픽 홍보관을 저비용으로 만들었는데, 15만 명이 다녀갔다. 또 리우올림픽의 무대 뒤편을 다 둘러봤다. 현장에 간 직원들이 매일 체크리스트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9월 중순 한국에 모여 하루 종일 발표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장은 건설 못지않게 사후 활용이 중요하다.
"경기장을 지어놓고 활용하지 못하면 성공 올림픽이 될 수 없다. IOC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후 활용은 '올림픽의 유산'이라고 하는데, 크게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5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가적 대사의 완수를 위해 조직위 임직원 모두는 사명감을 발휘할 테니, 국민적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3월까지 28개 세계선수권대회 테스트 리우올림픽 경제효과 미미...반면교사 교훈 조직위, IOC와 신뢰관계 구축...사명감 필수 경기장·숙박시설 사후 활용까지 만반의 준비



●이희범 위원장
▲생년월일=1949년 3월 23일(경북 안동 출생) ▲출신교=서울대사대부고~서울대 전자공학파~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원(MBA) ▲주요 경력=제12회 행정고시 합격(1972년), 주미대사관 상무관보(1988~1991년), 상공자원부 총무과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차관보(1991~2000년), 산업자원부 차관(2001~2002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2002~2003년), 서울산업대 총장(2003년), 산업자원부 장관(2003~2006년), 한국무역협회장(2006~2009년), STX에너지·STX중공업 총괄회장(2009~2013년), 한국경영자총협회장(2010~2014년), LG상사 대표이사 부회장(2014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2016년 5월~)

2가지로 본다. 하나는 '시설의 사후 활용'인데, 12개 경기장 중 10개는 주인을 정해주고 관리하도록 했다. 대개는 민간기업이고, 일부는 학교가 관리한다. 미정인 2개도 곧 결정된다. 주인이 결정되면 경기장 사후 활용은 해결됐다고 본다. 그 다음은 '개최도시의 발전'이다. 평창, 정선, 강릉에 숙박시설도 많이 건설하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손님 이 안 오면 죽은 도시가 된다. 다행히 2가지 뉴스가 있다.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평창과 강릉은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또 하나 뉴스는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2020도쿄올림픽과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것이다. 베이징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동계스포츠 붐을 일으키기 위해 3억 명을 양성한다고 한다. 경기장 시설도 대대적으로 짓는다. '베이징동계올림픽에 가기 위해 평창을 훈련소로 쓰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베이징에도 '평창을 또 하나의 시설로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한·중·일 올림픽위원회간의 협의체를 내가 주장해서 만들었다."

-인연~강릉간 고속철도 건설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 구축도 반드시 필요한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될 것이다. 영동고속도로 확장도 내년 초까지는 될 것이다. 올림픽 예산이 13조 원인데, 그 중 11조 원이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다.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해야 될 사업들이다. 이를 올림픽 예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올림픽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엑스포 때문에 서울~여수간 고속철도를 놓았는데, 그 덕분에 여수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이(인프라 구축)는 언젠가 해야 될 일이니까 지역균형 발

전을 위한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올림픽은 단순히 메달을 다투는 대회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국 선수단과 관광객, 취재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조직위원장 입장에서 모든 것이 100% 잘 되는 것이 성공한 올림픽이다. 수십 가지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문화올림픽이다. 선수들은 50일간 평창에 머물고, 전 세계 수많은 언론도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 찾아온다. 그들에게 관광 이벤트를, 문화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한국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즐길거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런 계획을 만들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리우에선 언어소통 측면을 포함해 자원봉사자들의 자질 또한 문제가 됐다.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는 2만2400명이 필요하다. 7월에 자원봉사자 모집 발대식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5만4000명이 신청했다. 내년 3월 마감하는데 10만 명 이상 신청할 것으로 본다. 해외에서도 120여 개국,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했다. 문제는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을 선발해 어떻게 교육하느냐."

-스폰서 확보는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올림픽 운영 재원의 40%는 국내 스폰서에서 온다. 해외 스폰서는 10%다. 940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80% 정도 됐고, 취임하면서 1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물론 어렵지만 해낼 것이다. 일본은 (2020도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1조5000억 원 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미 3조5000억 원이 들어왔다고 한다. 참 부러운 일이다."

-6월말 조직위 주사무소를 평창으로 이전했다. 애로사항은 없는가?
"나도 취임한지 3개월이 됐는데, 하도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해서 등이 아파 등받이를 하나를 받치다가 2개를 받치고 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서울에 온다. 소치올림픽의 경우 모스크바에서 소치로 6개월 전에 조직위 임직원들이 옮겨갔다.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도 25%가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다.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없이 24시간 커뮤니케이션하자고 당부했는데 잘해주고 있다. 내 휴대폰 번호도 전 직원에게 공개했다. 지금도 새벽 1시에 문자메시지가 온다. 지난 일요일 평창에 갔을 때는 저녁 6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지만, 체육행정은 큰 인연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3개월간 직접 부딪혀본 소감은?
"사실은 (내정 소식에) 나 스스로도 놀랐다. IOC도 개막 1년 반을 남겨두고 조직위원장이 바뀐 데다, 문의환이 온다는 소식이 굉장히 놀랐다. 취임식도 안 하고 첫날 평창과 강릉에 갔고, 셋째 날에는 IOC에서도 (한국에) 왔다. 지금은 여러 면에서 신뢰관계가 구축됐다. 올림픽이 성공하기 위해선 IOC, 대한민국 정부, 국민의 지원이 필요하다. 직원들에게 얘기했다. '사명감이 없으면 지금이 배에서 내려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 배에 탈 사람은 많습니까.' 우리 조직위 임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스포츠1부장 jace@donga.com

스포츠토토

케이토토, 사업능력 탁월...사업자 이관 공백 최소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가 (주)케이토토로 바뀐 지 1년이 지났다. 2015년 7월 1일부터 이전 사업자인 스포츠토토(주)의 뒤를 이어 투표권사업을 대행한 케이토토는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탁월한 사업능력을 발휘해 사업자 이관의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효율적 사업 운영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최대화에 기여

사업 운영을 위한 수수료가 전 사업자인 스포츠토토(주)에 비해 대폭 낮아진 상태에서 케이토토는 지난 1년간 효율적 인력 구성과 적극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투표권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 그 결과 케이토토는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통해 1조1000억원(상반기 스포츠토토(주) 실적 포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낮아진 수수료와 짧은 이관기간 등 여러 어려움과

우려를 딛고 이뤄낸 케이토토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 자정 노력 통해 튼튼한 사업 기반 마련

이런 과정이 모두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해 프로스포츠 승부조작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일어났다. 아울러 사업 이관기간이 짧았고, 조직 규모 또한 작아졌기 때문에 인력 재구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케이토토는 적극적 대응으로 빠르게 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조직 또한 튼튼하게 정비했다.

실제로 케이토토에서 이뤄지는 모든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국책사업을 운영하는 수탁사업자로서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도 고객 서비스는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국내에서 펼쳐지는 각종 국제대회 지원과 비인

기종목의 균형 발전이라는 본연의 활동도 잊지 않았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 하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 1월 스포츠토토빙상팀을 창단해 국내 빙상종목의 인기 증대와 저변 확대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줄곧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 부분에서도 정지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경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수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케이토토 손준철 대표 "흔들림 없이 투표권사업 충실히 이행할 것"

케이토토 손준철 대표는 "사업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케이토토를 아끼고 사랑을 보내준 모든 고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케이토토는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투표권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다양한 서비스와 투명한 운영으로 더욱 건강한 기업문화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야구토토 스페셜+ 126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1일 오전 8시 현재)

경기번호	1경기	2경기	3경기
출-원정	렘파베이 vs 토론토	미네소타 vs 시카고W	시애틀 vs LA에인절스
경기일시	9.3(토) 08:10	9.3(토) 08:10	9.3(토) 11:10
순위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1	(2-3)-(6-7)	7.09%	(6-7)-(2-3)
2	(4-5)-(6-7)	6.35%	(4-5)-(2-3)
3	(2-3)-(4-5)	5.92%	(6-7)-(4-5)
합팀 승	39.93%	50.41%	40.49%
같은 점수대	13.57%	13.78%	17.14%
출팀 패	46.51%	35.85%	42.37%

* 게임일시 : 3경기 6게임(또는 2경기 4게임) 최종 스코어 맞이기 * 표기방식 : 0~1점, 2~3점, 4~5점, 6~7점, 8~9점, 10+(10점 이상) * 발매마감 : 2016. 9. 2(금) 21:50

야구토토 스페셜 82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1일 오전 8시 현재)

경기번호	1경기	2경기	3경기
출-원정	삼성 vs KIA	롯데 vs NC	넥센 vs SK
경기일시	9.2(금) 18:30	9.2(금) 18:30	9.2(금) 18:30
순위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1	(4-5)-(2-3)	6.50%	(2-3)-(6-7)
2	(2-3)-(6-7)	5.73%	(2-3)-(4-5)
3	(4-5)-(6-7)	5.01%	(6-7)-(4-5)
합팀 승	40.93%	30.42%	47.32%
같은 점수대	13.97%	14.79%	12.46%
출팀 패	45.11%	54.79%	40.23%

게임일시 : 3경기 6게임(또는 2경기 4게임) 최종 스코어 맞이기 * 표기방식 : 0~1점, 2~3점, 4~5점, 6~7점, 8~9점, 10+(10점 이상) * 발매마감 : 2016. 9. 2(금) 18:20